**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복**

<롬 14:13-15:3>

13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5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6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1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2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길어야 백년 사는 이 유한한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같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무엇이든 더 적게 가져야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갖든 적게 갖든 행복은 마음의 문제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소위 팔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참 행복의 삶으로 초정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덟 번에 걸쳐 복을 선포하고 계신데, 그것은 세상의 행복 기준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 표현이 좀 멋있게 되어서 그렇지,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실제로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 마음이 아프고 공허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들을 더 행복한 사람들로 보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진정한 행복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가난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 또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참 행복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에서 소외되었기에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나은 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을 다른 이들과 구별짓는 결정적인 특징이 있다면, 자기 안에 있는 결핍으로 인해 마침내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눈이 열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의 근원임을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팔복 가운데 앞의 네 가지 복은 이처럼 무언가 결핍된 상황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복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그들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교회와 세상에서 또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팔복 가운데 뒤의 네 가지 복은 이처럼 예수님에 의해 채워진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우선, 로마서 1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잘 아시듯,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당시, 고린도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교회 안에는 한 가지 골치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제국 안에는 여러 신들에 대한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거기에 드려졌던 제물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민들이 피할 수 없는 식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물로 드려졌거나 혹은 드려졌을지 모르는 고기들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느냐의 문제를 놓고 교회 안에서 의견충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우상을 참 신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개방적인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제사에 사용된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오직 채소만 먹는 보수적인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기를 먹긴 먹으면서도 혹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양심에 거리낌을 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없이 잘 먹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러한 생각과 믿음의 차이는 교회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을 향해, 아직도 저렇게 믿음이 없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업신여겼습니다. 반면 그 우상의 제물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는 신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을 향해, 그들이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14장 3절에서 그들 모두에게 정중히 권면합니다. “먹는 이는 먹지 않는 이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이는 먹는 이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바울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사실 이 문제에 관한 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남들은 신도 많고 주도 많다고 하고,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분이 계실 뿐입니다.”

본문 14절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상숭배 자체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실제로 귀신을 섬기는 의미로 제물을 바치고, 이로써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분 하나님만을 믿고 경배합니다. 따라서 귀신들을 섬기는 의미로 제물을 바치고 그 식탁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15장 1절에서, 자기를 포함해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일컬어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칭합니다. 반면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먹긴 먹되 양심에 거리낌을 느끼는 이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바울의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 그가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그는 결코 소위 “믿음이 강한” 이들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이들을 향해, 오직 사랑을 따라 행하여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한편, 이처럼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림이 되는 상황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말씀을 찾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8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9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 안에서 우상의 제물 먹는 것에 대해 자유로운 한 사람이 있었다 칩시다. 어느날 그가 우상의 신전 안에 차려진 제물을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그 제물 먹는 것을 아직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는 것을 본 그는 이에 자극받아 불편한 양심을 살짝 억누르며 그 제물을 먹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믿음을 따라 먹은 것이 아니기에 결국 귀신의 식탁에 참여한 셈이 됩니다. 또한 의심하면서 먹었기에 이미 그 양심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강한 자의 지식과 자유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하나를 죄 짓게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말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12-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걸러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음식으로 인해 형제로 하여금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믿음 안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도,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한 청년이 “아, 정말 바울은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했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 “바울이 좀 그렇긴 하지. 형제를 실족시킬 위험이 있다고 좋아하는 음식까지도 끊는 건 좀 … 인생을 너무 숨막히게 사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바울이 참 멋있다” 감탄하면서도, “우리가 어찌 저렇게 살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드는 것, 어쩌면 우리의 자연스런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형제로 하여금 실수하여 죄를 짓게 하는 일이 그토록 끔찍한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인들에게 그렇게 자비로우셨던 예수님도,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례적으로,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하셨다는 사실. 마태복음 18장 6-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 보잘 것 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멧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 세상에 죄악의 유혹은 있게 마련이지만, 남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공동번역)

이 예수님 말씀에 따르자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사람입니다.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로 하여금 죄 짓게 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으며 불행하게 사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할 때, 여기에 한 인간의 위대함과 특별함이 끼어들 자리는 사실 없습니다. 그는 다만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이 준엄한 경고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연자멧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에 비하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결단은 어떤 의미에서 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는 관심을 보이고 또 조심도 합니다. 그러나 내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과 비교할 때, 너무나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그 예수님의 관심을 놓치고 살아왔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지식과 믿음을 자랑하면서 연약한 형제를 정죄하거나 실족케 한 일은 없었습니까? 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더 추구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덕을 세우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실제적인 권면을 줍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여러분이 거기에 가려고 하거든, 여러분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생각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말하거든, 그렇게 알려 준 사람과 그 양심을 생각해서, 드시지 마십시오. …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성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자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길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반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인생, 또한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참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고, 또한 그 나라가 오고 있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7절은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바로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추구하는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기 의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의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관계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의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비록 일시적으로는 우둔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내 형제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섬김과 희생으로 교회와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를 드러내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 행복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추구하는 기쁨은 현재의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 소망 안에서 내 기쁨을 잠시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모두가 함께 누릴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기쁨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기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미래의 더 온전한 기쁨을 위해 현재의 기쁨을 잠시 유보하는 삶은 고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소망 중에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추구하는 평화는 나 자신의 유익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사랑 안에서 서로 평화를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 주십니다.” 세상에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상대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인정하게 만들려는 이기적인 욕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 주시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속에 조용히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결코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찢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팔복 중 일곱 번째 복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 행복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한 누리는 행복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온전히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참 행복의 삶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축복임을 잘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셔서, 저희가 낙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며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